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푸른방송 고객상담팀 박미숙 과장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인정이 많아 베푸는 미덕이 보기 좋은 박미숙 과장님~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지치고 힘든 순간이 불현듯이 문을 열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후배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미숙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따뜻하게 챙겨 주시면서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단함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 관절염 통증이 있어도, 음식솜씨가 좋다 보니 동료들 먹을거리를 많이 챙겨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부추전을 부쳐 오셔서 점심시간에 먹어보라고 챙겨 주셨는데 부침개가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과장님 덕분에 우리 팀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부터는 주변 사람들 말고 자신 몸부터 아끼시고 돌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항상 후배들 위에서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미숙 과장님 화이팅~!!!

<칭찬하는 사람:박언미>



주위를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큰형님~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칭찬하는 사람:강효정>

생각만 해도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우리 큰형님은 임영웅 짠팬!! 사진, 노래, 콘서트 할 거 없이 임영웅 이름 석 자만 들어가면~ 말 안 해도 다 알 듯~ ㅎㅎ 지금까지 시집와서 고생한 큰형

님은 이제 좋아하는 것을 찾아 열심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하기 어려운 임영웅 콘서트를 갔다 오시고는 "스트레스 다 풀고 왔어. 기분이 넘 좋아서 내일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 같아~" 한참을 콘서트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넘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영웅 짠팬으로!!! 큰형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무료**로 연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를 통해 가계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